

정확한 가축 통계조사를 위한 양축농가의 협조



농산통계과장 원 광 식

〈농수산부 농수산통계관실〉

1. 무슨 통계를 조사하고 있는가.

전국 각 시·군에 있는 141개의 농수산통계출장소의 2천여명에 달하는 조사담당직원들은 작물 식부면적 조사, 경지면적 조사, 농업 기본 통계조사, 각종 작물의 생산량 조사, 가축 통계 조사, 농가경제 조사, 양곡소비량 조사, 어가 경제 조사, 어업 기본통계조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축 통계조사의 경우에는 주요 가축인 한우, 젖소, 돼지, 닭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2. 가축 통계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나.

가축 통계조사는 소의 경우는 6월과 12월에, 그리고 돼지·닭의 경우는 3월·6월·9월·12월에 사육규모별 마리수와 사육규모별 농가호수, 가축년령별 및 성별마리수, 그리고 생산·구입·폐사·출하마리수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닭의 경우는 계란 생산량과 용도별(육계, 산란계 등) 마리수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방법은 조사대상 사육농가를 방문하여 면접 청취조사를 주로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측사를 들여다보고 마리수를 세는 실측조사도 접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 농가의 선정은 보통 적은 규모의 가축 사육농가에 대하여는 해당되는 전체농가를 모두 조사하지 못하고 일부를 표본으로 뽑아서

조사하며 일정규모 이상의 사육농가에 대하여서만 전체 대상농가를 빠짐없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우는 10마리 이상 사육하는 농가를, 젖소는 사육농가 모두를 조사하며, 돼지는 20마리 이상, 그리고 닭은 200마리 이상 사육하는 농가에 대하여 전수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표본농가의 선정은 전문가들이 마련한 표본추출 이론에 입각하여 과학적이며 이론적인 방법으로 조사대상 농가를 뽑아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표본농가의 추출방법에 대하여는 지면관계상 설명을 생략함.)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조사된 내용은 각 시·군농수산통계출장소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중앙에 보내져서 전국 규모로 사육규모 등에 관한 통계숫자를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3. 통계는 누가 이용하나

이렇게 하여 나온 통계숫자는 축산관계 기관 즉 농수산부, 축산업협동조합, 축산관계협회, 학술연구기관 및 각 시·도·군에 이르기까지 축산과 관계되는 모든 기관에 보내지며 각 관계기관은 필요에 따라 통계자료를 더욱 자세하게 분석하여 개별 농가에까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통계자료는 축산진흥, 축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학술연구 등 축산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이용되고 조사결과는 또한 신속히 공포하여 축협계보 등에 게재함으로써 양축가가 앞으로의 수급을 전망하고 가격의 등락을 예측하여 스스로 사육규모를 조절할 수 있도록

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가격이 좋으면 많이 기르고, 가격이 나쁘면 적게 기르던 식의 무계획적인 사육으로 인하여 빚어졌던 생산의 과잉이나 과소현상은 통계자료를 이용함으로써 피할 수 있게 되며, 또한 주기적인 가격과동도 방지하여 결과적으로 안정된 경영을 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4. 왜 정확한 통계가 필요한가.

가축 통계조사는 국가적인 사업이며, 궁극적으로는 양축농가를 위한 조사인 것입니다.

통계가 정확하지 않으면 그것을 기초로 수립되는 국가시책이 잘못되게 되고, 잘못된 시책으로 인한 시행착오는 국가의 손실을 초래할 뿐 아니라 결국 국민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통계조사는 어떤 사람의 몸에 병이 있는지를 진단하는 것과 같으며 조사결과는 의사의 진단결과와도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단을 잘못하면 올바른 약을 쓸 수 없음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잘못된 결과를 맞는 줄 알고 자료로 사용하면 이에 기초를 둔 모든 정책이나 계획은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정확한 통계를 생산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5. 정확한 통계는 어떻게 만드나.

정확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는 조사를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조사결과를 발표하기까지 전 과정에서 정확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조사를 기획하는 전문가(조사설계는 대부분 대학교수 또는 학술연구 단체의 전문가 등에 의하여 마련됨)는 물론 중앙의 입안자, 조사를 담당하는 현지 조사원, 조사결과를 집계분석하는 컴퓨터 종사원, 그리고 올바른 답변을 제공하는 피조사자(가축사육 농가) 등 모두가 정확한 통계를 위하여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통계조사를 설계하는 전문가나 중앙의 입안자, 그리고 조사원들의 정확한 조사를 위한 노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한 마디로 주먹구구식의 통계조사를 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음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고도로 발달한 통계이론의 적용이나 전문직 통계요원의 숙련된 조사기술, 그리고 컴퓨터라고 하는 과학적 장비의 활용면에서 통계조사는 어쩔 수 없이 점점 정확해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입니다.

문제는 피조사자가 얼마나 성의있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느냐가 정확한 통계를 얻는 관건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가축 통계조사의 경우 모든 조사가 주로 면접 청취조사에 의존하기 때문에 피조사자의 정확한 답변이 더욱 중요시됨은 재삼 강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따금 피조사자의 정확한 답변이 의심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통계조사 결과가 세금부과 등에 잘못 쓰여져 피조사자에게 피해를 주는 예도 있었다고 합니다.

가까운 예로, 설명키는 어려우나 일제시대에 있었던 많은 조사가 전쟁물자의 징발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결국은 가혹한 착취를 가능케 하였던 것도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통계는 정확해야 한다”고 말하던 사람이 막상 자기가 피조사자의 입장에 서게 되면 혹시라도 자기에게 피해가 올까 하여 정확하게 답변하는 것을 회피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법으로서 통계 결과의 불미스런 이용을 방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통계조사 과정에서 알려진 개인·단체 또는 법인의 비밀보호(통계법 제8조), 통계조사 자료의 통계작성 목적 외 사용금지(통계법 제9조), 통계작성에 종사하는 또는 종사하였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도용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통계법 제18조) 등의 법규정은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예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중에는 의도적인 잘못된 답변으로 통계결과를 잘못되게 하고 나아가 정책을 잘못 수립하게 하여 그 가운데 어떠한 실수를 보고자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긴 설명도 필요없이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결과를 초래함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또 하나의 예는 조사자체를 소홀히 생각하여 대수롭지 않게 답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표본으로 뽑힌 양축농가가 “우리집 소 한마리, 돼지 한마리 빼놓은들 어떠랴”하는 생각으로 “없다”라고 하였다면 표본이 10분의 1로 뽑혔을 경우 10마리의 숫자가 잘못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확한 통계는 통계조사 전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나, 특히 피조사자인 가축사육 농가의 성의있는 정확한 답변이 정확한 통계를 생산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6. 양축농가는 통계결과를 어떻게 이용해야 하나?

끝으로 통계결과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양축농가의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통계조사 결과를 정책수립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제일 진요하게 이용하고 있음은 이미 설명한대로입니다.

그러나 농가의 입장에서 보면 비교적 큰 규모의 사육농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별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통계숫자를 들여다보기 보다는 이웃사람들의 말을 듣고 생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보통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것이 못됩니다.

먼저 발표된 통계숫자를 시·군단위의 농수산통계사무소나 군청 또는 축협에 문의하여 받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축협중앙회에서 발표하는 관측자료를 참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된 협회에 문의하여 보다 깊이있는 정보를 수집해야 할 것입니다.

몇마리 안되는 가축규모이니 그토록 애써서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은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늘 경험하는 예로 어떤축종이 가격이 좋고 계속 오르는듯하면 이웃사람 말만 듣고 너도나도 마릿수를 늘려 불과 몇달 후면 폭락이 되어 큰 손해를 보고 자신의 판단이 아무런 정보의 분석 없이 잘못되었음은 인정치 않고 정부를 탓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작은 규모건 큰 규모건 통계결과를 들여다보고 판단해야 함은 계속해서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입니다.

7. 결론

지금까지 가축 통계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한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정확한 조사를 위한 양축가 여러분의 성의있는 응답은 결과적으로 보다 발전적이며 건전한 정책수립에 직결되는 것이며 통계를 이용하는 축산농가는 안전한 경영과 실수없는 가축사육이 보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축산은 길러서 팔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통계자료의 이용을 통하여 경영을 합리화하는 농가만이 축산에 성공할 수 있게 될 것임을 재삼 강조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가축 통계 조사에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하면서 양축농가에 많은 발전있길 바랍니다.

완벽한 영양, 우유를 마시자!